

세레 요한으로부터 세레받으신 예수님

“그때에 세레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3:1)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함에 있어 공백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경에 보면 어린 예수가 날개 부러진 작은 새를 고쳤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으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12살 때의 사건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2살의 예수님에게는 매우 특별한 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유대 광야에서 외친 세레 요한의 사역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 때에 세레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3:1-4)

여기서 메뚜기라고 한 것이 실제로 메뚜기였는지 당시에 ‘여호수아의 떡’이라고 불렀던 케립나무 열매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달팽이가 미식가들의 최고요리로 호평을 받고 있는 판이니 메뚜기라고 먹지 말란 법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3:5-7)

여기에서 우리는 세레 요한이 당시의 성경 학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3:8)

회개했다는 사람은 많으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적습니다. 회개란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 하면서 그의 삶 속에 참으로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그의 회개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레 요한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우리들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달라진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은 저에게 수천 달러를 사기친 사람이 와서 매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푼의 돈도 저에게 되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때 세레 요한의 말이 생각나서 그에게 자신이 뉘우쳤다는 열매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고치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3: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는 말은 구원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착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구원의 보증인 양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3:10)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과실이 없으므로 예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막 11:12-14).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그 무화과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 죽은 것을 보고서 놀라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열매맺기를 바라셨습니다. 10절에서 세례 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므로 그 나무는 베어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그 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도록 하기 위해 믿지 않는 원가지를 꺾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길만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3:11)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와서 자신을 증거하지 않고 그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3:3)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흥미로운 인물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3:12)고 증거합니다. 당시의 타작 방법은 손에 키를 들고 곡식을 넣어 놓은 멍석 위를 이 키로 두들김으로써 쭉정이를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3:13 -15)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시므로 요한은 그분께 세례 주기를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본을 보이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벧전 2:21)고 했습니다.

세례는 무엇을 뜻합니까? 세례는 육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이 우선되어야 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영적인 삶은 육적인 삶 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이것 때문에 그분께 분노했습니다.

세례는 육적인 삶, 옛 본성, 옛 생활, 옛 야망, 옛 욕심을 죽이고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아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3:16-17)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 대한 인정을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요 8:28)라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10-11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집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KJV에는 ‘주의 뜻대로’ 대신 ‘주의 기뻐하심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음).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싫다고 해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좌절과 패배로 이어질 뿐입니다. 반면에 순종하여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면 영광스러운 성취의 삶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자 성령이 그분께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신약성경은 성령이 살아 계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은사의 체험이나 특별한 계시보다 성령 안에서의 생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14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요란하게 떠들어대면서도 바른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나치게 흥분하고 자기나름의 특이한 계시를 주장하면서 삶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일상의 삶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물론 영적 감동으로 인한 현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삶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하고 영적인 현상을 경험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시험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